

기업분석

후지소프트 (Fujisoft Inc.)

1.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후지소프트는 1970년에 설립된 일본의 독립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이다. 자동차, 금융, 통신, 제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솔루션을 제공한다.

특히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자동차 ECU, 통신 기기, 산업용 로봇 등 하드웨어와 결합된 소프트웨어를 주로 다룬다.

또한 **AI, 로봇(RPA), IoT, 클라우드 컴퓨팅, 사이버 보안** 등 차세대 기술 기반의 R&D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연구소도 운영하고 있다.

2. 어떤 사업적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지

- **수주형 사업구조**: 대부분 프로젝트가 고객사의 의뢰로 시작되기 때문에, 경기 불황 시 수익이 줄어들 수 있음.
- **인력 의존성**: 엔지니어의 역량과 수에 따라 기업 성과가 좌우되며, 기술인력 확보 경쟁이 치열함.
- **기술 변화 리스크**: AI, IoT, 클라우드 등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며, 이에 대한 적응과 지속적인 투자 필요.
- **해외사업 약점**: 일본 내 비중이 높고 글로벌 사업 확장은 아직 제한적.

3. 경쟁사는 어떤 곳인지

- **NTT데이터**: 일본 최대의 시스템통합(SI) 기업으로 공공·금융 SI에 강함.
- **TIS, SCSK, 히타치시스템즈**: B2B SI 영역에서 후지소프트와 유사한 포지션을 가진 경쟁사들.
- **글로벌 경쟁사**: IBM, Accenture 등 글로벌 컨설팅·SI 기업과도 일부 분야에서는 경쟁 중.

4. 경쟁사와 비교한 강점과 단점

- **강점:** 다양한 산업군에 걸친 기술력과 유연한 개발 방식, 최신 기술(AI, IoT, RPA) 대응 능력 빠름, 대기업보다 의사결정 구조가 유연하고 변화 수용력이 큼
 - **단점:** 브랜드 인지도와 자본력은 NTT데이터 같은 대형 기업에 비해 약함, 해외 시장에서 입지가 아직 미약,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음
-

5. 경영자의 키워드와 나의 키워드 매치성

후지소프트의 경영 철학은 **기술 중심의 자율적 조직 운영, 지속적 도전, 고객 가치 실현**이다.

나는 자율성과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중시하고, 실제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는 데 흥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후지소프트처럼 **개발자 중심의 문화**에서 자유롭게 기술을 활용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에 매력을 느낀다.

따라서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와 내 가치관의 매치율은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6. 자유분석

후지소프트는 대형 SI 기업에 비해 비교적 수평적인 조직문화와 자유로운 기술 선택을 강조한다.

또한 자사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 기술 공유를 활발히 하고 있으며, 개발자의 브랜딩도 지원하고 있다.

개발자의 성장을 위한 세미나, 외부 기술 커뮤니티 참여 등을 장려하며, **개발자의 성장을 회사의 경쟁력으로 삼는다**는 점이 인상 깊다.

7. 자유분석

후지소프트는 단순히 SI 기업이 아니라, 자체 R&D 조직과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다양한 신사업을 개발 중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시티 구축, 의료AI, 클라우드 기반 자동화 솔루션 등은 미래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 보인다.

이처럼 후지소프트는 **전통적인 SI를 넘어서 새로운 기술과 사회적 기여를 병행하는 회사**로 발전 중이며, 나의 기술적 목표와 사회적 가치 추구에 모두 부합한다.

NTT도코모 (NTT Docomo Inc.)

1.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NTT도코모는 일본 최대의 이동통신 회사이며, 현재는 단순한 통신 서비스를 넘어 **스마트 라이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을 시도 중이다.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모바일 통신 (5G, LTE 등)**
- **디지털 결제 및 금융 서비스 (d払い, d카드 등)**
- **헬스케어, 교육, 콘텐츠 스트리밍, 클라우드 플랫폼**
- **IoT·스마트홈 플랫폼 구축**

또한 도코모는 모회사인 NTT와 함께 6G 및 위성통신 분야 R&D에도 적극적으로 투자 중이다.

2. 어떤 사업적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지

- **통신시장 포화:** 인구 감소 및 통신 요금 인하 정책으로 인해 기존 사업의 수익성 저하
- **요금 경쟁 격화:** KDDI, 소프트뱅크, 라쿠텐과의 치열한 요금 경쟁
- **신규 사업 수익화 난항:** 플랫폼 전환이 진행 중이나, 수익 모델이 아직 정착되지 않음
- **정부 규제 리스크:** 일본 정부의 공공성 강조로 인해 수익성보다 공공성이 요구될 수 있음

3. 경쟁사는 어떤 곳인지

- **KDDI (au):** 일본 2위 통신사로 IoT, 스마트시티, 결제 분야에서 경쟁
- **소프트뱅크:** 기술기업 중심으로, 통신 외에도 투자/AI 분야까지 영역 확대
- **라쿠텐 모바일:** 저가 통신을 앞세운 신흥 경쟁사

4. 경쟁사와 비교한 강점과 단점

- **강점:** 전국망 보유, 안정적인 통신 인프라, 브랜드 신뢰도 및 고객 충성도 높음, 기술 개발력(6G, 위성통신)에서 선도적인 위치
- **단점:** 변화에 느린 조직문화, 민첩한 스타트업이나 IT기업 대비 혁신성 낮다는 평가, 새로운 플랫폼 사업에서는 후발주자

5. 경영자의 키워드와 나의 키워드 매치성

NTT도코모는 "커넥티드 소사이어티", "디지털로 연결된 삶", "기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강조한다.

나 역시 기술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특히 도코모의 **통신 기술을 넘어 사회적 기반 플랫폼으로 확장하려는 비전**은 내 가치관과 일치한다.

6. 자유분석

NTT도코모는 AI 기반 네트워크 최적화, 자율주행 통신 인프라, AR/VR 콘텐츠 등 다양한 미래 기술을 실험하고 있다.

또한 오픈이노베이션 형태로 스타트업과의 협력도 활발하며, **내부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도 존재한다.

개발자 입장에서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실험하고 확장할 기회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환경이다.

7. 자유분석

도코모는 단순한 통신사업을 넘어, **도시 전체를 연결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 중이다.

예: 스마트 교통, 공공 IoT, 건강관리 데이터 플랫폼

개발자로서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술자**로 일할 수 있는 경험이 가능하며, 기술로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나의 비전과 부합한다.

파나소닉 그룹 (Panasonic Holdings)

1.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파나소닉 그룹은 B2C와 B2B를 아우르는 일본의 대표적인 전자·기술 제조 기업이다.

현재는 그룹 체제로 운영되며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파나소닉 에너지**: EV용 배터리 (Tesla에 공급)
 - **파나소닉 커넥트**: B2B 솔루션(공공기관, 물류 자동화, 산업 솔루션)
 - **파나소닉 홈즈/라이프**: 주거·인테리어, 스마트홈
 - **자동차 부품, 영상 솔루션, 헬스케어 디바이스**
-

2. 어떤 사업적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지

- **글로벌 경쟁 심화**: 가전, 배터리, 전장 분야에서 중국·한국 기업과의 가격 경쟁
- **기술 혁신 속도 문제**: 하드웨어 중심 사고에서 소프트웨어 융합으로의 전환 속도 느림

- **공급망 리스크:** 반도체 및 희귀 금속 수급 불안정
 - **고정비 부담:** 대규모 제조설비 유지로 고정비 부담 큼
-

3. 경쟁사는 어떤 곳인지

- **삼성전자, LG전자:** 가전·스마트홈 분야
 - **소니, 도시바:** 전자 솔루션, 반도체 등
 - **중국 기업들:** 하이얼, CATL, BYD 등
-

4. 경쟁사와 비교한 강점과 단점

- **강점:** 지속 가능성 중심의 ESG 경영 실천, 고신뢰 제조기술, 품질에 대한 글로벌 평판, 다양한 산업에 적용 가능한 기술 포트폴리오
 - **단점:** 혁신 속도 및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응 부족, 브랜드 이미지가 다소 보수적, 젊은 세대와의 커뮤니케이션 부족
-

5. 경영자의 키워드와 나의 키워드 매치성

파나소닉의 철학은 “사람을 위한 기술”, “환경과 지속가능성”, “사회 공헌”이다.

나는 기술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환경/복지와 관련된 프로젝트에도 관심이 많다.

따라서 회사의 비전과 나의 가치관은 매우 잘 부합한다.

6. 자유분석

파나소닉은 최근 제조업의 소프트웨어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AI, IoT 엔지니어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B2B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물류 자동화 등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분야다.

7. 자유분석

‘기술로 삶을 바꾼다’는 철학 아래, 헬스케어·에너지 절감·안전한 도시 만들기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회사이다.

단순한 기업 이윤 추구보다 사회적 책임을 함께 지는 개발자가 되고 싶은 나에게 매우 매력적인 기업이다.